

말더듬의 사회문화적 연구와 그 영향

와타나베 가즈노리(渡辺克典) 리츠메이칸 대학 키누가사종합연구기구 박사후연구원

1. 장애학의 「사회모델」과 말더듬 연구

영국의 올리버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모델 (cf. Oliver, 1996)
→ 장애인운동에서 반응과 논의가 생겨남 (杉野(스기노), 2007, ch.4)

사회모델의 특징

·장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, 사회문제로서 사회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 (杉野(스기노), 2007: 117)

사회모델의 주장

- (1) 장애의 사회적 구축 모델의 제시
→ 손상 (impairment) 과 장애 (disability) 의 구별
- (2) 장애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메커니즘 해명
→ 장애를 「일탈」로서 배제하는 사회적 메커니즘
= 사회학의 일탈론, 의료화론 등의 이론적 틀

보고 개요

- 경도 언어장애로 분류되는 「말더듬」 연구에 착목
- ① 장애의 사회적 구축 모델과 관련된 말더듬 연구의 역사
- ② 말더듬의 사회문화적 연구가 사회학,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

2. 말더듬 연구의 사회문화적 요소의 위치

커뮤니케이션 장애로서의 말더듬

- 구음장애, 실어증(뇌기능장애), 구순구개열, 청각장애 등
→ 의료에서는 특히 「발달」 문제로 분류됨
- ICD-10:F98(소아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통상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의 장애) 중 5 (말더듬증)
- DSM-IV: 발달장애의 커뮤니케이션 장애
→ 「발달성말더듬」

발달성말더듬 = 증상의 「진전」

- ① 언어증상의 진전: 「반복」부터, 「연장」「막힘」까지
- ② 정상적인 발화에서는 필요없는 신체동작 수반(숨헐떡거리기, 눈깜박임, 발떨림 등) → 수반증상, 신체증상
- ③ 회화로부터의 일탈(대인문제), 발화에 대한 공포(정서성 반응)
→ 심리증상, 대인문제

발달성 말더듬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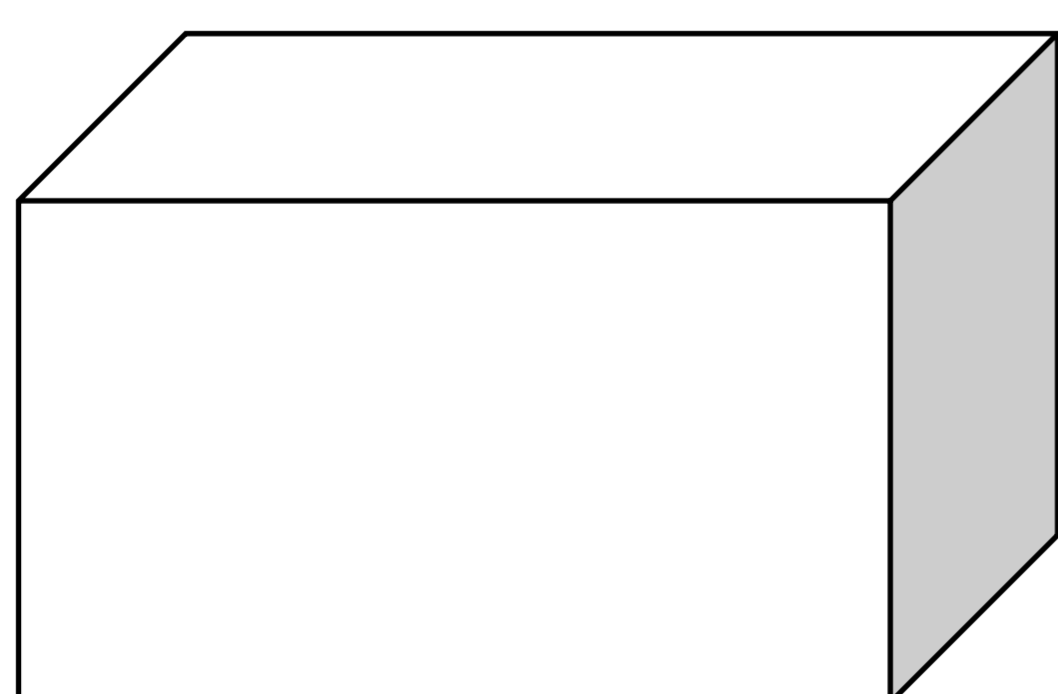
1) 증상의 단계

Bluemel (1932)	Van Riper (1963)	증상
1차성 말더듬	제1단계	언어증상: 반복, 연장이 중심 심리증상: 발화에 대한 공포는 없음
↓	제2단계	언어증상: 막힘이 출현 신체증상: 수반증상이 출현함 심리상태: 비유창한 발화에 대해 의식
	제3단계	심리증상: 말더듬에 대한 초조, 발화하기 힘들 단어를 회피함
2차성 말더듬	제4단계	심리증상: 발화에 대한 공포 대인문제: 인간관계를 피하게 됨

대인문제로서 말더듬 증상 → 인간관계(=사회)에 대한 착목

2) 말더듬의 3차원 이해

말더듬문제의 크기 = 말더듬증상(X축) × 듣는 측의 반응(Y축) × 말하는 측의 반응(Z축) (Johnson)



「듣는 측의 반응」으로서의 사회·문화에 대한 착목 (水町(미즈마치), 1991)

- 「커뮤니케이션 능력」과 「말더듬을 원인으로 하는 생활상의 제한」(cf. Yaruss, 1988; Guitar, 2006)
- 손상과 장애로 대응됨

3. 말더듬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사

말더듬 증상에 있어서 「사회」에 대한 착목의 특징

- 「듣는 측의 반응」에 의해 형성된 말더듬 증상으로 착목
- 듣는 측의 반응의 「다양성」에 대한 착목
- 연구가설: 사회, 문화에 따라 말더듬에 대한 평가·증상이 다르지는 않을까?

말더듬의 국제적 연구: 인류학자·사회학자 등에 의한 말더듬 출현률에 관한 조사

- ① 네이티브·아메리카 (Johnson, 1944; Bullen, 1945; Snidecor, 1947; Lemert, 1953)
- ② 아프리카 (Morgenstern, 1956)
- 듣는 측의 「말더듬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」가 말더듬 증상의 진전을 늦춘다는 것을 시사
- 말더듬 증상을 진전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

4. 사회학에 미친 영향

Edwin Lemert의 말더듬 조사

- Lemert, E., and C. van Riper, 1944, "The Use of Psychodrama in the Treatment of Speech Defects," *Sociometry*, 7.
- Lemert, E., 1953, "Some Indians Who Stutter," *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*, 18.
- Lemert, E., 1962, "Stuttering and Social Structure in Two Pacific Societies," *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*, 27.

Lemert의 일탈연구

- 사회학 일탈론의 「일차적 일탈」「이차적 일탈」을 도입
- ※ Bluemel 「일차적 말더듬」「이차적 말더듬」, Van Riper 등 언급
- Lemert, E., 1951, "Speech Defects and the Speech Defective" (Lemert, 1951 ch.6)

사회학의 라벨링론 (labeling theory) · 의료화론

- 일탈행동은 「주위의 사람들(사회)이 일탈이라는 레테르(letter/label)를 붙이는 라벨링(labeling)으로부터 일탈행동으로 간주된다」고 생각
- 일탈행동의 강화·증폭으로서 사람들(사회)의 반응을 받아들임
- 일탈의 의료화론으로 발전해 감 (Conrad&Schneider, 1992 ch.2)

5. 일본 말더듬 당사자 운동에 미친 영향

미국의 말더듬 연구의 소개

- Johnson이나 Van Riper 등의 번역서의 출판
-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말더듬 연구가 소개됨
- Johnson, W., 1961, *Stuttering and What We Can Do About It* = 1967年, 内須川洗(우치스가와 히로시) 訳(역) 『どもりの相談(말더듬 상담)』 日本文化社(일본문화사)
- Van Riper, C., 1963, *Speech Correction* = 1967年, 田口恒夫(타구치 츠네오) 訳(역) 『ことばの治療(말치료)』 新書館(신서관)
- 말더듬 당사자에게도 말더듬의 사회문화적 연구가 알려지게 됨

말더듬는 사람(吃音者)에 의한 당사자운동으로

- 1960년대 후반: 말더듬는 사람들끼리의 동료 교류 및 치료를 위한 공부 모임을 목적으로 한 「언우회(言友会)」
- 미국의 말더듬 연구에 대해 배움
- 말더듬을 「사회」 문제로서 다루는 방식의 하나가 됨
- 언어장애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운동
- 1968년: 「단결의 힘으로 말더듬을 극복하자」「전국의 말더듬을 해방시키자」
- 1970년: 언어장애 대책 요구 서명운동
- 단,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자조그룹으로 변화
- 최근에는 말더듬 사람들의 「사회적」 지원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.
- 주: 「언우회」에 대해서는 이하도 참조.
- 와타나베 가즈노리, 2011, 「언어장애인의 당사자운동—홀름자 「언우회(言友会)」의 역사와 현재」 <http://www.arsvi.com/2010/1107wk02-k.ppt>

References

- Bloodstein, O., 1995, *Handbook on Stuttering*, 5th ed., Singular.
- Bullen, A. K., 1945, "A Cross-Cultural Approach to the Problem of Stuttering," *Child Development*, 16: 1-83.
- Conrad, P and J. W. Schneider, 1992, *Deviance and Medicalization*, Temple University Press.
- Goffman, E., 1963, *Stigma*, Prentice-Hall.
- Guitar, B., 2006, *Stuttering*, 3rd ed., Lippincott Williams & Wilkins.
- Johnson, W. 1944, "The Indian Have No Word for It, Stuttering in Children," *Quarterly Journal of Speech*, 30: 330-337.
- Johnson, W. and D. Moeller eds., 1967, *Speech Handicapped School Children*, 3rd ed., Harper&Row.
- Lemert, E., 1951, *Social Pathology*, McGraw-Hill.
- 水町俊郎(미즈마치 토시로우), 1991, 「吃音の問題を構成している心理学的問題に関する研究(말더듬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심리학적 문제에 관한 연구)」*風樹書房*. Morgenstern, J. 1956, "Socio-economic Factors in Stuttering," *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*, 21: 25-33.
- Snidecor, J. C. 1947, "Why the Indian does not Stutter," *Quarterly Journal of Speech*, 33: 493-495.
- Oliver, M., 1996, *Understanding Disability*, Macmillan.
- 杉野昭博(스기노 아키히로), 2006, 『障害学(장애학)』東京大学出版会(도쿄대학출판부)
- Yaruss, J. S., 1998, "Describing the Consequences of Disorders," *Journal of Speech, Language, and Hearing Research*, 49, 249-257.

Acknowledgements

This work was supported by KAKENHI Grant-in-Aid for Young Scientists (B) No.23730478.